

메시지 3
성전의 재료들의 내재적인 의미
(2)

성경: 고전 3:12-17, 고후 5:9-11, 막 14:7-8, 갈 2:20, 벧전 2:4-7, 계 3:8, 12

- I. 언약케를 제외하고는(왕상 6:19), 성막과 비교할 때 성전에서 기구들과 집기들의 크기와 개수는 크게 늘었다(대하 4:1-8). 이것은 (언약케로 상징되신) 그리스도 자신은 확대되실 수 없을지라도 성전과 그 기구와 집기로 상징된, 모든 풍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그분의 확대된 표현에 어울리도록 크게 증가되고 확대되어야 함을 가리킨다—엡 3:8, 14-19, 빌 3:7-14, 비교 대상 22:14-19, 29:2-4.
- II.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상에서 그릇들의 크기뿐 아니라 무게까지도 보았다. 크기와 무게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서로 다른 방면들과 지체들의 서로 다른 은사들과 기능들이 반드시 합당하게 균형을 이루고 조화되어야 함을 상징한다—대상 28:14.
 - A. 역대기상 28장 15절에 매우 좋은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은 “... 무게를 각기 그 기구의 용도에 알맞게 하고”(원문 참조)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있는 각 항목의 무게는 그 항목의 용도에 알맞은 것이었다—비교 왕상 6:20, 엡 3:18.
 - B. 교회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에는 이러한 많은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여러 기능들을 가진 여러 지체들이 있다. 각각의 그릇들은 크든 작든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을 갖고 있다—엡 4:16, 고전 12:14-31, 고후 10:13.
- III.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합당한 재료들로 건축하고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 사람의 일은 ‘어떠한 종류’로 건축했는지에 따라 검증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한 일의 양(量)이 아니라 그 질(質)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고전 3:12-17, 아 1:10-11, 고후 5:9-11, 계 3:8, 막 14:7-8.
- IV. 성전의 주요 부분들이 금이 입혀진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입혀진 것, 곧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된 것을 상징한다—대하 3:7, 왕상 6:20-21, 30, 32, 35, 7:48-51.
 - A. 주님의 회복은 회복된 백성을 그분 자신으로 입히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이루어진다.
 - B. 하나(eness)는 우리가 금으로 완전히 입혀질 때까지 삼일 하나님 안으로 깊이 잠기는 문제이다. 참된 하나 안에 지켜지는 유일한 길은 체험되신 하나님을 충분히 소유하는 것이다—엡 4:3, 골 2:19.
- V. 성전의 제단과 바다와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졌다.
 - A.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출 27:1-8, 민 21:8-9, 요 3:14.

- B. 낯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고, 열두 마리의 소가 그 바다를 받치고 있었다(왕상 7:23-26, 대하 4:15, 출 38:8, 엡 5:26). 열 개의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씻기 위한 것이었다(대하 4:6).
- C. 열 개의 물두멍이 함께 있는 낯 바다(대하 4:2-6, 왕상 7:23-40)는 하나님의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을 상징하는데, 이 영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씻어 내신다(요 16:8, 딤후 3:5, 히 10:22).

VI. 성전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낯으로 건축되었다—왕상 7:14-15, 계 3:12, 21:22.

- A. 성경에서 기둥은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가운데서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건축물의 표시판, 곧 증거이다—창 28:22상, 왕상 7:15-22, 갈 2:9, 딤후 3:15, 계 3:12, 롬 12:2, 엡 4:11-12.
- B. 창세기 28장 18절에 따르면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그것을 기둥으로 세웠다.
 - 1. 돌이 기둥이 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을 통하여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된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안식을 위한 베개가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마 11:28-30.
 - 2. 베개가 기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체험했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건축물인 하나님의 집을 위한 재료와 버팀대가 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왕상 7:21, 딤후 3:15.
- C.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낯) 아래 있으면서, 자신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죽고 장사되기에만 합당하다는 것을 깨닫는다—시 51:5, 출 4:1-9, 롬 7:18, 마 3:16-17.
 - 1.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고전 15:10, 갈 2:20, 뱀전 5:5-7.
 - 2. 믿는 이들 가운데 분열과 열매 없음, 이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낯, 곧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교만, 자기 자랑, 자기 변호, 자기 정당화, 자화자찬, 자기 변명, 스스로 의롭다 함,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고 찾는 대신에 그들을 유죄 판결하고 통제함이 있다—마 16:24, 눅 9:54-55.
 - 3. 우리가 낯의 사람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체험할 때(겔 40:3), 그분은 우리의 비범한 사랑, 끝없는 관용, 비할 데 없는 신실함, 절대적인 겸손, 최고의 순수함, 지고한 거룩함과 의, 우리의 빛남과 올바름이 되신다—빌 4:5-8.
- D. 성전에 있는 기둥들의 기둥머리 위에는 ‘바둑판 모양(격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이 있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기둥들인 사람들이 생활을 하며 책임을 지고 있는, 복잡하고 얽혀 있는 상황을 상징한다—왕상 7:17, 고후 1:12, 4:7-8.
- E. 기둥머리 위에는 백합화들과 석류들이 있었다—왕상 7:18-20.
 - 1. 백합화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 곧 우리의 어둠함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둠함에 의해 사는 생활을 상징한다. 낯은 ‘내가 아니요’를 의미하고, 백합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아 2:1-2, 마 6:28, 30, 고후 5:4, 갈 2:20.

2. 기둥머리의 화관에 있는 석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의 충만, 풍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표현을 상징한다—빌 1:19-21상, 엡 1:22-23, 3:19.
3. 그물망에 의해 제해지고 사슬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여,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표현할 수 있다.

VII. 성전의 돌들은 그리스도의 변화된 인성, 곧 변화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왕상 5:15-18, 6:7, 36, 대상 29:2, 대하 3:6.

- A.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의 사람, 곧 옛 창조물에 속한 사람이 되신 후에, 그분의 인간 부분은 변화될 필요가 있었다—롬 1:3-4.
- B. 이렇게 변화되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건축물의 살아 있는 돌과 기초 돌과 모퉁이 돌과 꼭대기 돌이시다—벧전 2:4, 사 28:16, 고전 3:11, 엡 2:20, 벧전 2:6, 숙 4:7, 3:9, 계 5:6, 4:3, 21:11.
- C. 성전에 있는 돌들은 또한 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마 16:18, 요 1:42, 벧전 2:4-7, 계 21:11, 14, 18-21, 비교 단 2:34-35, 44-45.
- D. 신약은 살아 있는 돌들에 대해 말하고(벧전 2:5), 구약은 쓰인 돌들에 대해 말한다(왕상 5:15, 17-18, 6:7). 교회 건축을 위해 사용되는 돌들은 반드시 내적으로 살아 있고 외적으로 잘려야(처리되어야) 한다(고후 4:16).
 1.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자매들은 ‘거친’ 돌, 곧 채석장에서 갓 캐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가득한 돌에 비유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들을 접촉하면, 상처를 받아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된다.
 2. 그들은 건축될 만큼 충분히 안정되어 있지 않다. 즉 다른 이들과 함께 동역하고 봉사하거나, 다른 이들과 함께 전쟁을 하거나, 다른 이들과 함께 언약궤를 짊어질 만큼 충분히 안정되어 있지 않다.
 3.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된 각각의 돌은 원칙상 이미 산에서 뜨이고 처리되었다. 따라서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성전은 조용한 가운데 건축되었다—왕상 5:15-18, 6:7, 비교 사 30:15상.
 4. 교회는 자아의 ‘소음’이 조금도 없이 건축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유일한 소리는 음악과 같은, 주님을 부르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즐거운 소음’이어야 한다—시 100:1-5, 행 4:10-12, 빌 4:4, 히 13:15, 살전 5:16-18, 골 3:16-17, 대상 6:31-32.

VIII. 성경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데 칠 년 반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했음을 말해 준다(왕상 6:1, 38, 5:13-16, 9:20-21).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안정되고 강화되고 증가되고 확대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동이 트고 셋별이 떠오르기까지 몸 안에서 점차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밝게’ 체험해야 하는 것임을 가리킨다—고후 4:16, 출 23:30, 잠 4:18, 벧후 1:19.